

지방자치·종합

‘통합 강조’ 손학규 전 대표

무등산 올라 대권 도전 ‘기지가’

‘리틀 노무현’ 김두관 경남도지사

“총선 불출마... 호남없인 승리 없다”

“4·11 총선 이전 민주당 통합 입당”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28일 광주 무등산에 올라 올해 대권 도전에 대해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압승 등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27 경기도 분당을 보결선거에서 출마해 당선된 데 이어 지난해 야권통합으로 4·11 총선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놓은 것으로 자신이 할 역할은 다한 만큼 연말 대권에 직결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냐”라는 질문에 그는 “수도권 선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제한과 제약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온몸을 다해 뛰고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야권 통합과정에서 불거진 호

남 출대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왜 이런 소리가 나왔느냐”라고 반문한 뒤 “호남 지지 없인 총선도 힘들다. 지난 야권 통합 과정에서 그렇게(호남을 배제한 것처럼) 비춰졌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양·곡성·구례 선거구 분할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역 의원이 없다고 편의적으로 조개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 문제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원칙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과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의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며 민주당 통합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분 분 보장 없이 당원과 국민이 참여해(국민이) 납득할 만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무등산 장봉재 습지에서 휴식하던 중 김두관 경남도지사사와 만났으나 가벼운 안부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담양·곡성·구례 분할 원칙에 어긋나는 것”



“PK지역 민심 변화 조짐 총선 승리로 지역 극복”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김두관 경남도 지사가 28일 무등산을 찾아 4·11 총선 이전에 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입당 시기를 4·11 총선 이전으로 잡은 이유는 민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PK(부산·경남) 지역에서 승리해 당내 입지를 다지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지사는 이날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회의 등 300명과 함께 무등산 노무현 길 산행에 앞서 가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승리에 기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4·11 총선 이전에 입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총선에서 PK 지역에서 승리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국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광주·전남 시도 민의 염원을 응원하면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경남지역 민심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부산·경남지역 민심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예전과는 크게 다른 느낌”이라면서 “다만, 이런 변화가 의석과 연결될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설과 관련, 그는 “안철수 교수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대선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나 역시 마찬가지”라며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기대가 만들어낸 소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보통합당과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선거연대나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야권통합을 추진했지만, 안 됐다. 중통합에 그치고 말았다”며 “쉽지 않겠지만, 선거연대는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문민정사에서 법선 주지스님을 만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무등산 ‘노무현 길’을 등반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 후임 4명 압축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1% 슈퍼부자증세

민주 4월 총선 ‘3대 핵심공약’ 가닥

김영환 지경위원장 “CNK 청문회 추진”

현 정부 실세인 최시중(75)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임자를 이번 주중 지명키로 하고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한 채 고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27일 방통위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임 발표가 갑작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이 제가 떠나야 할 때”라며 “연초부터 제 부하 직원이 끊임없이 연루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검찰이 기각한 한국방송에

술진흥원 이사장을 기소했으나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임자를 이번 주중 지명키로 하고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한 채 고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고흥길(68) 한나라당 의원과 송도균(69) 전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손기식(62)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홍기선(70)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위원장 등 4명이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

곽승준 “KTX 민영화 다음 정부로 넘겨야”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은 27일 KTX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논쟁할 거리가 아니고 다음 정부에 넘겨야 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케이블종편채널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해 “5년차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갑자기 민영화

가지고 논쟁하고 싸운다면 국민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영화에 대한 것은 (집권 마지못해 해인) 5년차에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완수하지 못한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도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민중통합당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1% 슈퍼부자증세’를 4월 총선의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책위의장은 29일 이같이 밝히고 “당내에 이미 설치돼 있는 경제민주화특위, 보편적복지특위, 조세개혁특위를 본격 가동, 다음달까지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 안을 바탕으로 총선공약 개발단(가칭)이 3월초까지 공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계열사 공공계약 입찰 제한 ▲재벌계열사 순환출자 금지

▲재벌계열사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등이다.

민주당은 특히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입법 ▲납품단가 현실화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 보호를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의 계열사 과다보유에 따른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부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 공약으로는 기존의

‘3+1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주거복지와 일자리복지를 추가하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세계개혁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은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야심작’ 가운데 하나다.

1% 부자증세를 통해 99%의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등 세계 전반에 걸쳐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하고, 10대 세 감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교통부는 27일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를 중앙경제위원회에 회부했다.

또한 김영환(민주당)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이날 CNK 주가조각 의혹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경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금융감독원, 지식경제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등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적극 검토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합뉴스

검, 의혹 관련자 3명 출금

씨엔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당국에 의해 고발·통보된 주요 인물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금금지 대상자는 오덕균(46) CNK 대표, 조종표(60) 전 국무총리실장, 김은석(54) 외교교통부 에너지자원대사 등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현재 케냐로 출국한 상태로 입국 시 통

檢, 박양수 前민주당 의원 영장 청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9일 동료의원 사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경 주가조각 혐의로 징역 2

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빌라, 주택/재개발, 양촌형빌라, 근린주택, 임대주택, 김태호전문부사 011-684-3886.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사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앞 유지빌딩 501. 오피스텔 상가. 투자 및 사업용 토지. 목포, 순천, 여수 도시형생활주택. 부지500-1000평구할, 주거2층이상에서 상업지역까지. 010-3616-8698. 062-233-2222.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복합상가(매매), 토지(매매), 상무지구 1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반환기 사거리코너). 010-8289-8549.

가은 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상무지구 빌딩매매, 아파트 1층상가 매매, 상무지구 롯데시네마 11층. 010-8289-8549.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010-8289-8549.